

간호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준비 경험

김지영
상명대학교 간호학과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career and employment preparation

Jiyoung Kim
Department of Nursing, Sangmyu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준비 경험을 탐색하고자 질적내용분석의 귀납적 방법에 따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남학생 7명, 여학생 24명으로 총 31명의 3학년 간호대학생이었다. 심층면접은 진로 및 취업준비 경험에 대해 실시하였고, 면접자료는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수집되었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준비 경험에 대한 개인적 요인은 '진로결정에 대한 불확실성', '취업준비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평가', '대학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 '내재적 직업가치 추구', '본격적 취업준비를 위한 노력'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준비 경험에 대한 상황적 요인은 '교육환경문제 인식', '취업준비를 위한 자원 요구'이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와 취업준비 경험의 본질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통찰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다양하고 체계적인 진로와 취업준비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an inductiv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method to explore the career and employment preparation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31 third-year nursing students (7 male and 24 female). From September 2020 to December 2021,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their career and employment preparation experience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qualitatively analyzed.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that personal factors were 'uncertainty about career decision', 'negative self-evaluation of employment preparation', 'positive experience of college life', 'pursuit of intrinsic work value', and 'efforts to prepare for employment'. The situational factors included 'recognition of educational environment problems' and 'requirement of resources for employment preparation'. This study contributed to the in-depth understanding and insight into the nature of career and employment preparation experiences among nursing students. The results indicate the necessity of developing and applying various and systematic career and employment preparation programs.

Keywords : Nursing Students, Career, Employment, Experience, Qualitative Research

1. 서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여 취업하고 직업에 적응하기 위한 태도와 행동을 향상시키는 것은 대학생활 동안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업으로, 안정적인 취업과 직업 선택

을 위해 간호학과의 지원자가 증가하고 있다[1]. 2021년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는 23,363명으로[2], 매년 2만 명 이상의 간호대학생이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 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졸업생 취업률을 65%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간호대학은 취업률을 목표 수준 이상으로

본 연구는 2021학년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였음.

*Corresponding Author : Jiyoung Kim(Sangmyung Univ.)

email: jy1223kim@smu.ac.kr

Received August 1, 2022

Accepted November 4, 2022

Revised September 14, 2022

Published November 30, 2022

달성하고 있다[3]. 실제로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취업률은 67.1%인 것에 비해 간호학과는 88.0%로 20% 이상 높게 나타났다[4].

이와 같이 간호대학생은 타 전공자에 비해 취업률이 높고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간호학과 정원 급증에 따라 대다수가 원하는 수도권 소재 종합병원 이상의 취업이 쉽지 않고[5], 타 보건계열학과 학생보다 취업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 따라서 진로와 취업에 대한 부담과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간호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의 경험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은 진로 결정 시 본인의 적성과 내재적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보수와 안정성과 같은 외재적 가치만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8]. 이런 경우 취업 후 직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만족과 성취가 낮아, 조기 퇴사하거나 빈번한 이직과 이탈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준비에 깊은 탐색을 통해 취업 후 부적응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해야 한다.

간호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진로성숙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취업준비행동 등과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는 양적연구가 수행되었다. 간호대학생의 독립성, 준비성, 확신성, 결정성의 진로성숙도가 높으면 취업준비행동 정도가 높았다[9]. 진로성숙도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취업스트레스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1, 10].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11], 대인관계[12]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에서 진로, 취업과 관련된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나, 간호대학생이 진로와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는 경험에 초점을 둔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며, 양적연구결과를 통해 진로 및 취업준비에 대한 생각, 감정과 행동을 탐색하고 그 의미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질적연구는 대상자의 질적자료를 통해 그들과 관련된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진로 및 취업준비 경험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탐색하기 위해 질적연구방법을 선택하고자 한다.

간호대학생의 진로, 취업과 관련 질적연구는 주로 졸업을 앞둔 4학년 간호대학생이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경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였다[6, 13, 14].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학년별로 3학년이 높게 나타났으며[1, 5], 3학년 간호대학생

의 전공만족도 역시 다른 학년보다 유의하게 낮았다[5]. 선행연구[7]에서는 졸업과 취업 시점에 증가하는 취업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그 이전부터 본인의 성격과 적성에 맞는 진로와 취업을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진로 및 취업준비를 앞둔 3학년 간호대학생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으로, 이들의 진로 및 취업준비 경험을 돌아보고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진로 및 취업상담과 교육에 대한 시사점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은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정체성[15]과 성공적인 진로와 취업 결정[16-18]을 위한 필수요소로 나타났는데, 3학년은 임상실습을 시작하는 첫 학년인 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3학년 간호대학생이 진로 및 취업을 준비하며 경험하는 개인적, 상황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내용분석을 이용하여 취업이 결정되지 않은 3학년 간호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준비 경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3학년 간호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준비를 이해하고, 진로 및 취업준비 상담 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준비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질적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을 하였다.

2.2 연구대상

연구 참여자는 1개 대학교의 3학년 간호대학생의 의도추출하였다. 진로 및 취업관련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로 및 취업관련 교과목은 3학년 2학기에 교육과정으로, 간호사로서의 현장에서 실제 근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부족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게 돕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자기소개서, 이력서, 성취사항(학점, 토익, 자격증 등) 작성을 통해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면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구체적 취업 기관을 탐색하여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참여자의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대학생 또는 간호대학생의 진로, 취업과 관련된 질적연구[13,14,19]에서 21~27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것을 근거로 하여, 27명 내외의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하였으며,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 총 31명으로 구성하였다. 여학생 24명, 남학생 7명이었고, 연령은 최소 만 21세부터 최대 만 25세이었다. 학점은 2.99점 이하가 3명, 3.00~3.49점이 9명, 3.50~3.99점이 14명, 4.00점 이상이 5명이었다. 토익 시험을 응시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31명 중 15명이었으며, 15명 중 토익점수 600점 이하 5명, 700~799점 4명, 800~899점 3명, 900점 이상은 3명이었다.

2.3 자료수집방법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이었다. 자료수집은 일대일 심층 면담을 시행하여 진로 및 취업준비 경험에 대해 파악하였다. 면담 질문은 “간호대학 3학년 학생으로서 진로와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무엇을 하고 있나요?”, “진로와 취업을 준비하면서 경험한 생각과 감정은 무엇인가요?”, “진로와 취업 준비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등의 주요 질문으로 하였다. 특히 공통으로 나오는 경험에 대해 “그 경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등의 질문을 통해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면담 종료 시점에 “추가적인 경험, 감정이나 생각을 이야기해 주세요.” 등의 마무리 질문을 하였다. 또한, 진로 및 취업경험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것, 좀 더 요구되는 것 등을 자유롭게 개별 성찰일지에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하였다. 면담은 참여자들에게 익숙한 교내 스티디룸, 휴게실 등에서 시행하였다. 면담은 최소 40분에서 최대 1시간 30분 정도 이루어졌으며, 면담내용은 동의하에 스마트폰의 녹음기능을 활용하여 음성 녹음하였다.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면담 전 연구의 목적과 방법, 면담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면담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익명성이 보장되며,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진로 및 취업관련 교과과정을 진행하고, 연구 참여가 교과목 이수에 전혀 영향이 없음을 설명하였으며, 자발적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

2.4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Elo와 Kyngäs[20]의 질적내용분석의 귀납적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첫째, 준비단계에서는 자료를 여러 번 읽으며, 단어, 문장 등의 의미 있는 분석 단위를 선택하였다. 둘째, 조직화단계에서는 개방 코딩, 범주화 생성 및 추상화를 하였다. 먼저 개방 코딩에서는 의미 있는 분석 단위를 읽으며 적절한 개념이나 문구를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범주화 생성에서는 상위 주제에 따라 그룹화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또한, 추상화에서는 범주화 생성을 통해 연구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을 공식화하였다. 셋째, 보고단계에서 주제, 범주, 하위범주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연구자는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에서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개인적인 경험이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반성과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며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는 질적내용분석 및 현상학적 연구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질적연구 논문 심사를 하고 있다. 질적 연구학회, 워크숍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참여자들의 경험을 탐색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었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3학년 간호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준비 경험을 개인적, 상황적 요인으로 나누어 범주화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준비 경험에 대한 개인적 요인은 5개 범주, 11개 하위범주이었으며, 상황적 요인은 2개 범주, 4개 하위범주로 확인되었다(Table 1).

3.1 진로 및 취업준비에 대한 개인적 경험

간호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준비에 대한 개인적 경험 범주는 ‘진로결정에 대한 불확실성’, ‘취업준비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평가’, ‘대학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 ‘내재적 직업가치 추구’, ‘본격적 취업준비를 위한 노력’이었다.

3.1.1 진로결정에 대한 불확실성

‘진로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의 범주에는 ‘진로목표 미결정’, ‘진로계획 부족’의 하위범주가 포함되었다. 먼저 참여자들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를 결정하지 못하였고, 진로목표를 선택하지 못하였다. 특히 본인에게 적합한 분야 선택을 하지 못하였다고 느꼈다.

Table 1. Themes, Categories, and Subcategories of the Study

Themes	Categories	Subcategories
Personal factors	Uncertainty about career decis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decided career goals • Lack of career plans
	Negative self-evaluation of employment prepa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sufficient employment preparation • Passive career attitude • Regret of grade management
	Positive experience of college li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ooth friendship • Satisfaction with career development
	Pursuit of intrinsic work va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eer choice to demonstrate ability • Considering the value of development
	Efforts to prepare for employ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utonomous Career motivation • Active information gathering activities
Situational factors	Recognition of educational environment proble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iversity life focused on academic activities • Restrictions due to COVID-19
	Requirement of resources for employment prepa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ining for work experience • Program to strengthen career competencies

나를 학교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나의 취업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지원해야 할지 등 나의 진로에 대해 더 생각해야겠다고 느꼈다(참여자 15).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전혀 없이 대학 3년을 빠르게 보내온 것 같아 이제 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진로 목표는 여름 방학 중 제 최대의 고민이었으나, 아직도 취업 후에 제가 간호사로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어서 계속 고민할 예정이다(참여자 23).

아직 취업준비도 상태는 많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한다. 2학기 때는 진로목표와 취업에 대해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참여자 27).

또한, 참여자들은 구체적인 진로계획이 부족하고 계획이 막연하다고 진술하였다. 앞으로 진로계획을 세우고 진로와 취업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간호학과 학생으로 3학년이 되었지만, 아직 병원에 대

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취업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준비하며 내가 갈 길을 정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시작해 나가야 할 것 같다(참여자 3).

지금까지 취업은 먼 미래 일이라고 생각하여 아무 생각과 계획 없이 방학과 학기를 보내고 살았던 것 같다(참여자 16).

3.1.2 취업준비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평가

‘취업준비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평가’의 범주에는 ‘미흡한 취업준비’, ‘수동적인 진로태도’, ‘학점관리의 아쉬움’의 하위범주가 포함되었다. 우선 참여자들은 취업을 위한 어학시험과 자격증 미취득 등 취업준비가 미흡했음을 깨닫고,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였다.

토익 시험을 1학년 때 토익 프로그램에 참여해 모의로 본 시험을 제외하고 정식으로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점과 영어 공부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다. 취업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게 느껴져서 뒤늦은 후회와 조급함이 생겼다(참여자 1).

얼마 뒤 국가고시 준비하랴 자소서 쓰랴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게 될 텐데 그에 반해 자격증이나 토익도 준비되지 않아 정말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다(참여자 4).

취업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안 하였음에 대해 자괴감이 들었고, 이번 겨울엔 토익이나, BLS 자격증 및 어학점수 취득 필요성을 인식하였다(참여자 7).

또한, 참여자들은 자신이 취업 준비에 대해 수동적이라고 느꼈다.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정보탐색에 대해 스스로 노력하지 않았고 대학생활에서 주도적,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어디 주변에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정확히 내가 어디 병원 어느 부서를 가야 할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스스로 알아볼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다(참여자 6).

대학생활을 주도적이지 않고 수동적으로 해왔던 것 같다. 주어진 일만 하며 주어진 일에도 최선을 다했던가? 의문이 든다. 이런 생각을 4학년까지 가져간다면 양심에 찔려서 취업 준비를 하고 간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을

잘할 수 있을까(참여자 12).

특히 참여자들은 학점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하였다. 이로 인해 자존감이 저하되었으며, 전공적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었다. 전공 공부도 '이 정도면 평균은 했으니까.'라는 생각을 하며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으면 그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았었다(참여자 5).

학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 3학년 2학기과 4학년 1학기에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참여자 11).

학과 수업에 흥미를 느끼다가도 시험 기간 즈음 되면 공부에 흥미를 못 느껴 오래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 성적도 낮다(참여자 19).

성적을 확인하고 전의를 상실했다. 그동안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오로지 저의 기준이었다.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일단 주어진 일부터 해결해보기로 했다. 성적이 들어가는 마지막 학기인 이번에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참여자 25).

1학년 때는 간호학과에 대한 환상과 학업에 대한 열정이 가장 넘쳤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면서 성적도 점점 떨어졌다. 그와 동시에 간호학과가 나랑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자주 했다(참여자 27).

3.1.3 대학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

'대학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의 범주에는 '원만한 교우관계', '경력개발에 대한 만족'의 하위범주가 포함되었다. 먼저 참여자들은 대학생활의 성취사항은 부족하지만 동기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지해주었던 기억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였다.

나의 대학생활은 성적에 비해 긍정적으로 생활하였던 것 같다. 학우, 친구들과의 관계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먼 타지에서 왔지만, 항상 옆에 이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게 학교생활을 보내고 있다(참여자 7).

지금까지의 대학생활을 떠올리면서 동기들과 같이 어울려 지냈던 추억들,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했던 기억들과

동아리 활동 및 각종 봉사활동을 했던 순간들을 떠올릴 수 있었다(참여자 10).

또한, 참여자들은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학생회활동 등 교과 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취업과 관련된 경험, 실전 경험을 쌓으며 경력개발을 하였고, 대인관계도 발전하였다는 점에서 만족하였다.

대학생활 3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보다 좋았던 것은 동아리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성취감들이었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위로해 주는 미래의 간호사가 되기 위해 대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우선 멀리서가 아닌 주변에서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습관이 필요했다. 그래서 XX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봉사를 하였다 (중략) 남은 대학생활 동안 전공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간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참여자 13).

많지는 않지만 여러 봉사활동과 교외 근로 활동을 통해 간호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목표를 세워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참여자 14).

우울한 마음에 이미 취업에 성공하신 작년 학생회 선배와 대화를 나누어봤는데, 학생회라는 스펙이 취업할 때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그 말이 내가 대학 생활을 아예 허투루 한 것은 아니라는 위로가 되었고, 열심히 살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참여자 22).

3.1.4 내재적 직업가치 추구

'내재적 직업가치 추구'의 범주에는 '능력 발휘를 위한 진로선택', '발전성의 가치 고려'의 하위범주가 포함되었다. 먼저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잘 맞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페이가 좋은 병원보다 내가 잘 맞는 병원,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괜찮은 병원에 취업하고 싶다고 느꼈다. 물론 페이가 세면 좋고 병원의 환경이 좋다면 그것 또한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으로 저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살려 취업에 임할 것이다(참여자 12).

토의 공부, 자격증 취득과 같은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잘 맞는 병원을 찾고, 역량을 키우기 위해 배로 노력할 것이다.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 성장하는 나 자신이 될 것이다(참여자 26).

취업은 큰 대학병원보다 병원에 과연 내가 어울리는 사람이 맞는지부터 확인하고 싶다(참여자 28).

또한, 참여자들은 발전성 가치를 고려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자신이 더 성공하고 발전하며 배울 기회가 있는 곳에 취업하고자 하였다.

내가 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어떠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최선의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첫걸음을 지금부터의 취업 준비에 쏟아 볼 것이다. 취업에 있어서만큼은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참여자 5).

진로와 직무에 대해 몇 갈래의 길을 정해 놓았지만, 아직 확실히 정하지 못해서 마음이 조급하다. 병원 네임벨류보다도 한 곳에서 진득하게 잘 해내서 오래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참여자 18).

3.1.5 본격적 취업준비를 위한 노력

‘본격적 취업준비를 위한 노력’의 범주에는 ‘자율적 진로동기’, ‘적극적 정보수집활동’의 하위범주가 포함되었다. 먼저 참여자들은 진로와 취업준비에 대한 주체성이 필요함을 느끼고 동기가 유발되었다.

막상 내가 취업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 되돌아보며 지금까지 활동한 게 별로 없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원에 취직하기 위해 자료를 직접 찾아보는 자세를 지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참여자 8).

주체적으로 해본 게 없다는 생각에 이번엔 대외활동에 지원하기도 했는데 내가 맡은 직무를 책임감 있게 해내서 잘 마무리하고 싶다(참여자 21).

또한, 참여자들은 적극적 정보수집활동의 의지를 다졌다. 희망 취업지 뿐 아니라 희망부서를 생각해봐야겠다고 느꼈으며, 희망하는 병원의 비전, 미션, 직무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내가 어느 병원에 가고 싶은지, 어느 과에 가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도 자세히 생각해봐야겠다고 느꼈다(참여자 19).

희망하는 병원 또한 2개의 병원이 확고한 반면 그 병원의 인재상, 비전, 미션 등을 알아보지 않았다는 점이 안타까웠다.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왜 그 병원에 가고 싶은지 자세하게 이유를 만들어가야 할 것 같다(참여자 24).

3.2 진로 및 취업준비에 대한 상황적 경험

간호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준비에 대한 상황적 경험 범주는 ‘교육환경문제 인식’, ‘취업준비를 위한 자원 요구’이었다.

3.2.1 교육환경문제 인식

‘교육환경문제 인식’의 범주에는 ‘학업활동 위주의 대학생활’,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의 하위범주가 포함되었다. 우선 참여자들은 학점관리에 치중하며 시험공부에 열중하느라 진로 및 취업에 대해 소홀히 하였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대학에 와서 시험공부만 하고 시험성적에만 연연하느라 정작 해야 할 일들에는 관심을 두지 못한 것 같아서 좀 후회하는 마음이 크다. 나의 진로를 확실히 하고 내가 해야 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참여자 6).

대학교 3년 타이트하게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놀랐다.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고 하고 싶어서 찾아봤던 활동들을 행동에 옮겨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참여자 12).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통학을 하며 학교와 집만 왔다 갔다 하게 되어서 그저 학교 수업만 잘 들으면 되겠지라는 생각만 하고, 어떤 봉사를 해야 하는지, 어떤 대회를 나가야 좋을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참여자 20).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학기가 시작되면 전공 수업을 따라가느라 급급하고, 방학이 되면 쉬고 이런 패턴이 반복이었던 것 같다(참여자 21).

봉사활동, 진로 및 취업프로그램 등 학업 이외의 활동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 후회스러웠고 지금부

더라도 참여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했다(참여자 26).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에서의 임상실습, 봉사활동과 같은 대외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대학의 모든 행사와 교내활동이 축소되면서 취업준비를 비롯하여 여러 활동 참여 기회가 감소하였고, 무기력해짐을 경험하였다.

봉사활동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상 병원실습을 하지 못하다 보니 여러 병원과 직무에 대해서 경험할 기회가 없어서 병원 및 직무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아쉽다(참여자 9).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임상실습을 많이 나가지 못해 경험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임상실습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라 생각되는데 이 점이 현실점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 혼자만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잘 극복하고 다른 방법들로 저의 생각과 경험을 채우기 위해 노력해 볼 생각이다(참여자 12).

1학년 때 의욕 있고 긍정적인 사고로 축제와 봉사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 고등학교와는 다른 수준 높은 강의 등 대학생활에 대해 찬찬히 적응할 수 있었다. 이전과는 다른 경험들이 스스로를 자극하는 느낌에 즐겁기도 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한 대학생활은 이전과는 달리 자극이 최소화되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늘 어지는 자신을 붙잡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강의를 듣고 공부를 했다(참여자 25).

3.2.2 취업준비를 위한 자원 요구

‘취업준비를 위한 자원 요구’의 범주에는 ‘직무 경험을 위한 교육’, ‘진로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하위범주가 포함되었다. 먼저 참여자들은 병원과 간호사 직무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전공과 실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진로와 취업준비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취업준비를 위해 체험과 같은 경험이 많았으면 좋겠다. 물론 이론 공부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100번 글로 보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직접 보고 만져보면서 현실적인 부문에서의 병원과 간호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더 들려주셨으면 좋겠다(참여자 31).

또한, 참여자들은 학과와 대학 차원의 진로 및 취업프로그램을 원하였으며, 선배와의 만남과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실제적인 정보를 얻고 진로탐색과 진로관리와 같은 진로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선배들의 취업 성공기, 외국 간호사 취업 성공기, 대학원 합격과 같은 다양한 설명회를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 현실적인 대학병원 및 기업병원 취업 이야기 같은 것도 듣고 싶다(참여자 28).

간호학과의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병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더 많은 지원, 취업프로그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참여자 29).

간호학과 특강 및 취업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참여자 30).

4. 논의

본 연구는 졸업학년이 되기 이전 3학년 간호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준비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탐색하며 이들을 위한 진로 및 취업준비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준비 경험을 개인적, 상황적 요인으로 나누어 범주화하였다.

첫 번째 개인적 요인으로 ‘진로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하위범주는 ‘진로목표 미결정’, ‘진로계획 부족’으로, 참여자들은 진로목표, 진로계획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며, 취업이 이제야 와닿기 시작하는 부분으로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고, 취업이 먼 미래의 일로 막연하게 느껴졌다고 표현하였다. 간호학과는 국가고시, 면허증 취득 후 전문분야로 진로가 확정되어 진로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타 학과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으나, 조기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진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21]. 개인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진로 및 경력계획을 수립하고 진로발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광의의 교육이 필수적이다[9,21]. 따라서 취업률 증가와 같은 정량적 지표를 위한 지원이 아니라, 본인의 진로목표를 확인하고 준비과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대학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임상분야로의 취업뿐 아니라 지역사회, 보건교사 등의 교육분야, 공무원 등의 행정분야, 해외 취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으므로[21], 간호대학생이 진출

분야를 충분히 탐색하고 적합한 진로선택과 목표달성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개인적 요인으로 '취업준비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평가'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하위범주는 '미흡한 취업준비'로, 현 취업준비 상태에 실망하였으며, 부족한 성취사항에 대해 후회하였다. 간호대학교 2, 3학년 재학생 대상 연구[22]에서 간호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은 3학년이 2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타 학년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3학년 간호대학생이 어학시험과 자격증 미취득 등에 취업준비가 미흡하다고 진술하였다. 병원에서는 채용 시 어학시험 점수, 자격증 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있어, 간호대학생은 학점관리뿐 아니라 이를 취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에게 어학시험과 자격증 취득 준비에 적당한 시기와 학년별 로드맵을 제시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부정적인 정서를 예방하고 감소하기 위한 중재 적용이 요구된다. 특히 대부분 학교에 로드맵이 작성되어 있으나 학생들의 실천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전공에 적합하고 학생의 요구에 부합하는 진로 및 취업관련 교과목 운영, 어학시험 또는 자격증 취득 인준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과목 이수율과 인준제를 통해 취업준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학년별 취업준비 영향과 변화를 장기적으로 추적하여 교육과정 개편과 제도마련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하위범주는 '수동적인 진로태도'로, 취업준비에 대해 능동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자아정체감 발달 경험 연구[23]에서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지 못한 것과 유사하였다. 의사 결정 경험이 많지 않은 간호대학생은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진로태도가 부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교육과정에서 의사결정능력, 자기주도적 태도가 함양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능동적인 태도로 진로 및 취업을 탐색 및 검토하고, 필요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선행연구[21]에서 진로탐색에 대한 적극성과 주도성이 높은 경우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진로 및 취업준비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임하여 취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세 번째 하위범주는 '학점관리의 아쉬움'으로, 학점관리 노력 부족을 아쉬워하였다. 성적이 '상'인 간호대학생이 '하'인 대상자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1,11], 진로성숙도도 높았다[1]. 선행연구[1]에서

는 경쟁력을 갖추고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위해 성적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한 이후에도 병원에서는 성적증명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학업스트레스가 나타났다[12]. 따라서 진로와 취업 관리뿐 아니라, 학점관리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자기주도학습, 튜터링, 학업성취도 미달성자 관리 등을 활용하여 학업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발적으로 학점관리와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진로 및 취업에 대한 동기와 의지를 부여해주어야 한다.

세 번째 개인적 요인으로 '대학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하위범주는 '원만한 교우관계'로, 대학생활에서 교우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보건의료계열 학과 4학년 재학생 대상 연구[12]에서 대상자는 현장실습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 형성이 양호하여 대인관계 점수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3학년 학생이며 코로나19로 현장실습의 제한이 있었으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교우관계를 형성하며 대인관계능력을 함양하고 있었다. 대인관계역량은 추후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대상자를 만나 의사소통하고 타 의료진과 협력해야 하는 간호사에게 매우 중요한 진로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위한 대인관계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로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은 교우와의 관계에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으므로[23], 진로와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지지체계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교수는 동기와 선후배 간에 취업정보를 공유하고 지지를 주고받는 긍정적인 교우관계 형성을 도와야 한다.

두 번째 하위범주는 '경력개발에 대한 만족'으로, 다양한 교과외 경험과 활동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 경험 연구결과, 여행, 아르바이트 등의 다양한 경험과 교과외 활동을 통해 시야가 넓어졌다고 하였다[19].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아르바이트 등의 경험은 다양한 실천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되고 취업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으로, 취업 후 적응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겠다.

네 번째 개인적 요인으로 '내재적 직업가치 추구'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하위범주는 '능력 발휘를 위한 진로선택', '발전성의 가치 고려'로, 참여자들은 진로를 선택하는 데 보수, 안정성, 사회적 인정 등 외재적 가치뿐 아니라 내재적 직업가치를 인식하고 취업 이후 능력을 발휘, 발전하며 자아실현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Koo[23]의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은 취업여건이나 보수 등 외재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중국의 간호대학생은 직업의 목적, 의미,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간호대학생의 직업가치관이 높을수록 취업 준비행동정도가 높았으며[9], 대학생활적응에 내재적 직업가치가 영향을 미치므로, 발달 단계상 청소년기인 간호대학생에게 내재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직업의 의미와 목적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24]. 따라서 간호대학생은 저학년부터 자기 탐구와 자기 이해를 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진로 및 취업관련 교과, 비교과활동을 단순 정보제공, 일반적인 진로발달 과정이 아닌 자기성찰 중심의 과정으로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가치관과 직업적 가치관은 무엇인지, 간호분야를 선택한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며, 장기적으로 미래에 어떤 간호사로서 경력개발을 해나갈 것인지 등의 관점을 숙려하도록 해야 한다. 간호대학생은 자기성찰과 탐색을 통해 선택한 분야에 대해 자신감, 만족감, 성취감을 느낄 것이며, 간호 본질의 실천과 간호직 발전 도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병원과 기관에서도 적응력 향상을 위한 실무능력향상 교육과 함께 간호 전문직으로서의 미래가능성, 발전을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 교육, 전문성 강화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제시한다면 우수한 간호인력확보와 조기사직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 개인적 요인으로 '본격적 취업준비를 위한 노력'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하위범주는 '자율적 진로동기'로, 본격적인 취업준비에 대한 자율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깨닫고 진로동기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Koo[23]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은 대학진학 시 고등학교 성적이 맞추거나 부모나 교사의 결정과 권유를 받아들이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진로를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시기를 경험하지만, 확신이 없는 상태로 혼란스러워하였다. 본 연구는 진로 및 취업관련 교과목 수강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진로에 대한 관심이 있어 자율적 진로동기가 유발되었을 수 있다. 수집된 자료에서 "수업을 통해서 좀 더 나의 진로를 확실히 하고 내가 해야 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참여자 6)"라고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은 앞서 도출된 범주와 같이 진로결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부정적인 자기평가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취업준비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긍정적인 전환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를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두 번째 하위범주는 '적극적 정보수집활동'으로, 전반

적인 진로의 개념보다 더 구체적으로 취업을 위한 의료기관, 직업의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하고자 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진로교육은 의료기관 채용정보, 자격증 관련 정보제공 등 협의의 교육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지만[9,21], 희망 취업을 구체화한 학생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채용정보와 함께 기관의 비전, 미션, 부서, 직무 등의 정보를 탐색하여 본인의 비전과 부합하는지, 자신의 능력과 적성이 기관과 부서에서 요구하는 직무와 적합한지를 고려하여 진로 적응력을 향상하도록 해야 한다.

첫 번째 상황적 요인으로 '교육환경문제 인식'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하위범주는 '학업활동 위주의 대학생활'로, 학업활동을 위주로 전공학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에 비해 취업준비가 미흡함을 깨달았다. 간호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를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었다[25]. 간호학과 졸업학년 학생은 국가고시 준비, 임상실습 이수 등 과중한 학업 부담으로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13]. Jang 등의 연구[21]에서 진로관련 정규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진로상담을 경험한 학생이 진로준비행동이 높았다. 간호대학생이 학업활동뿐 아니라, 진로와 취업에 필요한 준비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며 대처할 수 있도록 진로 및 취업관련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하위범주는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으로, 임상실습, 교내외활동의 제약을 겪었다. 선행연구[26]에서 간호대학생은 실습 이후 취업에서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27,28]이 코로나19로 인해 임상실습의 대안으로 한 실습교육을 제공하고 자 하였다면, 본 연구는 임상실습의 제약이 진로 및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Son 등[14]의 질적연구에서는 임상실습에서의 진로탐색과정을 통해 진로에 대한 확신을 얻었으며, 임상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간호사를 탐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Koo[23]의 질적연구에서도 임상실습을 진로탐색의 기회로 생각하며 간호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을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국외연구[16-18]에서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은 학생에서 간호사로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현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으나 임상실습과 교내외활동이 완전히 정상화되지는 못한 실정이다. 교수자는 제한된 임상실습이지만 간호지식을 실제로 관찰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실습지도를 해야 하며, 임상에서의 경험이 의미 있는 진로탐색과 연관 지어질 수 있도록 진로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 깊은 탐색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현장감 있는 실습프로그램 개발뿐 아니라, 실습과 활동의 제약을 보완하고 진로탐색과 관련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간호현장에 대한 이해와 간호사로서의 역량 등 다양한 주제의 특강 시행, 임상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배와의 멘토링 등을 제공해야 한다.

두 번째 상황적 요인으로 '취업준비를 위한 자원 요구'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하위범주는 '직무 경험을 위한 교육'으로, 진로결정을 위해서는 직무 경험을 위한 체험과 실습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Kim[29]의 연구에서는 인적자원역량 강화를 위한 실용성 있는 취업교육프로그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핵심간호술 교육프로그램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간호학과 졸업학년 학생 대상 연구[13]에서는 장래에 지원하고 취업하게 될 실습병원들의 변화와 지원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자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임상현장의 괴리감을 줄이고 간호사로 근무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상실습, 시뮬레이션 실습, 임상연수 등을 취업준비교육으로 활용해야 한다.

두 번째 하위범주는 '진로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학과와 대학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을 요구하였다. 졸업을 앞둔 간호대학생은 지도교수제 시행, 정기적인 진로 및 취업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간호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도록 취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취업상담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6], 학교의 취업지원센터가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인식한 것[13]과 유사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진로관련 프로그램은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는데[30], 졸업학년 뿐 아니라 학년별 특성을 반영한 진로역량강화프로그램이 개발 및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최신 정보뿐 아니라, 취업을 희망하는 병원의 실제적인 정보와 조언, 생생한 취업 노하우를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요구도와 실용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학생의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양방향 소통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특강, 선배와의 만남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역할모델로 삼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진로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본 연구결과의 제한점은, 연구자가 연구 내용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논의를 통해 연구결과의 전이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다른 맥락(지역, 학교, 학년 등)에서의 이해

를 위해서는 연구결과를 신중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참여자의 대다수가 여학생으로, 성별에 따른 취업경험을 확인하는데 제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학년 간호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경험을 개인적, 상황적 요인의 주제로 범주화함으로써 경험을 다각도로 이해하여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진로 및 취업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더 나아가 병원과 기관에서도 간호대학생이 진로 및 취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기관에 부합하는 맞춤형 채용전략 수립과 조기퇴사 감소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3학년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진로 및 취업 경험에 대해 확인하여 향후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진로와 취업준비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자료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진로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취업준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대학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이 있었으며 내재적 직업가치를 추구하고 본격적 취업준비 노력을 하고자 하였다. 또한, 상황적인 요인에서는 진로 및 취업준비에 장애물이 되는 교육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진로결정을 위한 자원을 요구하며 진로 및 취업준비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간호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준비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3학년 이후 4학년 간호대학생, 취업 후 경험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S. M. Ahn, K. Kim, "The influenc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job-seeking stress on nursing students' career matur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1, pp.555-565,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1.555>
- [2]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formation and News, 2022 [cited 2022 July 13]. Available From: https://www.kuksiwon.or.kr/news/brd/m_88/view.do?seq=14&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

- [&company_nm=](#) (accessed Feb. 25, 2022)
- [3]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Standards, 2022 [cited 2022 July 13]. Available From: <http://www.kabone.or.kr/eng/edu/accreditation.do> (accessed Feb. 25, 2022)
 - [4]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Statistical yearbook for employment of higher education graduates, 2020 [cited 2022 July 13]. Available From: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20&pubSeq=58&menuSeq=0&itemCode=02&language=en#> (accessed Dec. 31, 2020)
 - [5] E. Y. Cho, J. Kim, J. Y. Kim, H. J. Kim, E. S. Ra, H. Y. Lee, "The factors influencing employment stres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2, No.1, pp.35-43, 2016. DOI: <http://dx.doi.org/10.17703/JCCT.2016.2.1.35>
 - [6] Y. J. Kim, "A study on the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for preparing employment",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2, No.2, pp.33-44, 2018.
 - [7] H. Jeon, M. Lee, "Influence of self-esteem and appearance satisfaction on job-seeking stress in nursing and health care related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12, pp.643-651,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12.643>
 - [8] M. J. Kim, K. J. Kang, "The influence of calling, work values and adaptation resources on the nursing students' college adjustment", *The Korea Society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ol.28, No.3, pp.667-677, 2016. DOI: <http://dx.doi.org/10.13000/JFMSE.2016.28.3.667>
 - [9] M. S. Kim, "The analysis of nursing students' work value, career attitude maturity influence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11, pp.96-105,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11.96>
 - [10] S. Kim, S. Lee, "The influence of job-seeking str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on nursing students' happines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27, No.1, pp.63-72, 2015. DOI: <http://dx.doi.org/10.7475/kjan.2015.27.1.63>
 - [11] M. O. Chae, "Ego resili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job seeking stress of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7, No.4, pp.229-238, 2019. DOI: <https://doi.org/10.14400/JDC.2019.17.4.229>
 - [12] M. Bang, S. Sim, "Affecting factors in job-seeking stress among health care related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8, No.10, pp.257-266, 2018. DOI: <https://doi.org/10.5392/JKCA.2018.18.10.257>
 - [13] J. E. Hong, H. Lee, "Experiences of hospital pre-employment among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29, No.2, pp.83-95, 2020. DOI: <https://doi.org/10.12934/jkpmhn.2020.29.2.83>
 - [14] H. M. Son, Y. K. Hong, Y. H. Kim, "Career exploration process of nursing student in clinical practice: A voyage to find the authentic nurse of pre-registration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5, No.1, pp.69-82, 2019.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9.25.1.69>
 - [15] L. Z. Wei, S. S. Zhou, S. Hu, Z. Zhou, J. Chen, "Influences of nursing students' career planning, internship experience, and other factors on professional identity", *Nurse Education Today*, Vol.99, pp.104781, 2021. DOI: <https://doi.org/10.1016/j.nedt.2021.104781>
 - [16] M. Birks, T. Bagley, T. Park, C. Burkot, J. Mills, "The impact of clinical placement model on learning in nursing: A descriptive exploratory study", *The Australia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34, No.3, pp.16-23, 2017. DOI: https://search.informit.org/doi/10.3316/informit_947093739842983
 - [17] A. M. Kaihlanen, M. Elovainio, E. Haavisto, L. Salminen, L., & T. Sinervo, "The associations between the final clinical practicum elements and the transition experience of early career nurses: a cross-sectional study",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42, pp.102680, 2020. DOI: <https://doi.org/10.1016/j.nepr.2019.102680>
 - [18] P. Paliadelis, P. Wood, "Learning from clinical placement experience: analysing nursing students' final reflections in a digital storytelling activity",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20, pp.39-44, 2016. DOI: <https://doi.org/10.1016/j.nepr.2016.06.005>
 - [19] M. H. Hwang, H. J. Cho, Y. J. Cho, J. W. Bang, "A qualitative study on the meaning of work and experiences of career decision proces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Vol.32, No.3, pp.675-699, 2013.
 - [20] S. Elo, H. Kyngäs,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proces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62, No.1, pp.107-115, 2008.
 - [21] M. H. Jang, M. S. Kwak, J. R. Ah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39, No.1, pp.1-18, 2020. DOI: <https://doi.org/10.37210/JVER.2020.39.1.1>
 - [22] H. J. Choi, J. S. Kim, "Comparison between nursing student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anxiety", *Journal of Korean Employment & Career Association*, Vol.8 No.3, pp.21-33, 2018. DOI: <http://doi.org/10.35273/jec.2018.8.3.002>

- [23] H. Y. Koo, "Korean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ego identity development",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23, No.3, pp.340-352, 2017.
DOI: <https://doi.org/10.4094/chnr.2017.23.3.340>
- [24] M. J. Kim, K. J. Kang, "The influence of calling, work values and adaptation resources on the nursing students' college adjustment",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ol.28, No.3, pp.667-677, 2016.
DOI: <https://doi.org/10.13000/JFMSE.2016.28.3.667>
- [25] W. Fang, Y. Zhang, J. Mei, X. Chai, X. Fan, "Relationships between optimism, educational environment, career adaptability and career motivation in nursing undergraduates: a cross-sectional study", *Nurse Education Today*, Vol.68, pp.33-39, 2018.
DOI: <https://doi.org/10.1016/j.nedt.2018.05.025>
- [26] H. J. Jung, S. J. Kang, "Preference for employment among nursing students' at one universit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2, No.3, pp.631-644, 2021.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2.3.45>
- [27] H. Lee, H. Jeon, "Experience in child health nursing practice using virtual simulation in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imulation in Nursing*, Vol.10, No.1, pp.73-87, 2022.
DOI: <https://doi.org/10.17333/JKSSN.2022.10.1.73>
- [28] K. L. Shea, E. J. Rovera, "Preparing for the COVID-19 pandemic and its impact on a nursing simulation curriculum",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60, No.1, pp.52-55, 2021.
DOI: <https://doi.org/10.3928/01484834-20201217-12>
- [29] Y. H. Kim, "Th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 attitude and employment strategy on the core fundamental nursing education program of graduated grad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10, pp.363-372,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10.363>
- [30] Y. S. Seo, C. Y. Jeong, "Effect of career coaching program for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self-leadership, and employment-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12, pp.138-145,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12.138>

김 지 영(Jiyoung Kim)

[정회원]



- 200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학사)
- 2012년 9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노인전문간호 (간호학 석사)
- 201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성인간호 (간호학박사)
- 2020년 3월 ~ 현재 : 상명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기본 간호, 성인 건강, 노인 건강, 여성 건강, 간호 교육